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 한국산림기술인회 NEWSLETTER 2024.05.

씨를

뿌리기

좋은

망종



[www.tkfea.or.kr](http://www.tkfea.or.kr)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芒種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6월 교육과정 안내!



6월 10일(월) ~ 6월 14일(금)

제2기 공학기술전문과정

6월 24일(월) ~ 6월 28일(금)

제3기 경영 + 공학 통합과정


※ 과정별 클릭 시 해당 과정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 비대면  
혼합 교육**



**150명 모집**

**교육신청** 

제2기 공학기술전문과정(블랙)

제3기 경영+공학 통합과정(블랙)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은 **최소인원(40명)** 미충족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법정교육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대면(1일) + 비대면(4일)** 혼합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며,  
교육일정은 추후 추가개설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	10	11	12	13	14	15
	제2기 공학기술전문과정					
23	24	25	26	27	28	29
	제3기 경영 + 공학 통합과정					

[교육원 홈페이지 가기](#)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 산림기술자 법정정보수교육

# 교육비 인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명(시간)	교육비
기본교육과정(35시간)	<del>298,500</del> → 248,500
경영+공학 통합과정(40시간)	<del>350,000</del> → 300,000
경영기술과정(35시간)	<del>298,500</del> → 248,500
경영기술과정(20시간)	<del>172,000</del> → 142,000
경영기술과정(15시간)	<del>126,500</del> → 106,500
공학기술과정(35시간)	<del>350,000</del> → 280,000
공학기술과정(20시간)	<del>204,300</del> → 160,000
공학기술과정(15시간)	<del>150,700</del> → 120,000
녹지조경과정(35시간)	<del>298,500</del> → 248,500
녹지조경과정(20시간)	<del>172,000</del> → 142,000
녹지조경과정(15시간)	<del>126,500</del> → 106,500
경영기능과정(35시간)	<del>298,500</del> → 248,500

인하 교육비 적용 : 5월 20일(월) 부터 문의사항 : 1533-5160(교육문의)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 후기쓰고 선물받자

# 교육 후기를 부탁해!





# 교육 후기 이벤트

## 하나!

2024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두울!

### [교육 후기 참여 방법]

제출 형식 : 사진 및 원고 등

필수사항 : 제출 시 성명+생년월일 기재 필수!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shekdms@tkfea.or.kr)


## 세엣!

참여기간 : 2024년 연중

선정발표 : 개별 연락 예정

※ 교육 후기 선정 후 교육원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교육원 교육 이수생이 아닐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The Korea Forest Engineer Education Institution

# “ 실제 교육생이 전하는 ” 생생한 교육 후기

## 산림기술인 교육원 선생님께

산림기술인 교육과 발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기사(경영,공학) 1기 (2024.4.15.-19 ) 교육생 최○석  
입니다 ( 교육생증 제가 두 번째로 교령이더군요)

교육전에는 종전의 비대면 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바뀐데 대하  
여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으나

실제로 교육을 받고 보니 임업기술 강의내용도 좋았지만 특히  
열정적인 교수님들을 만나 살아온 인생공부를 한 것이 보람으  
로 남았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중 세분 교수님의 강의내  
용이 자기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연구 노력해온 과정 이야기는  
큰 인생공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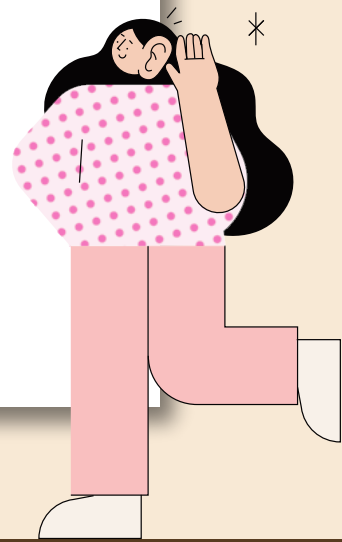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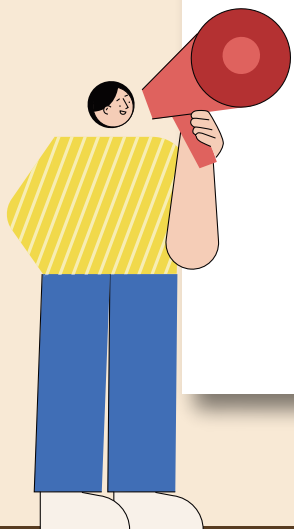
- 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기술 ; 조○기 교수
- 0. 사방설계 감리 : 전○우 교수
- 0. 사업별 설계감리 : 박○순

그 외에도 임목수확시스템(박○준 교수), 인도설계및시공 (오○  
곤 기술사)등 모든 교수님들이 열성을 다해 교육해 주심을 피  
부로 느끼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친절과 성심껏 도움을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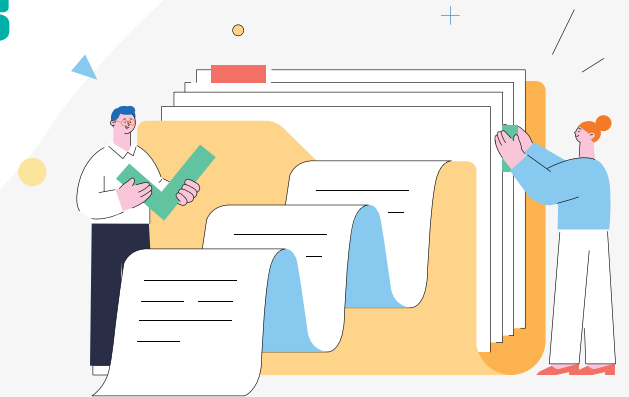
교육생 최 ○ 석 드림



# 한국산림기술인회

##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신청

발급절차  
및 안내



### 제출서류

-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  
※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기술인회 서식)  
※ 온라인 접수 경우 업체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작성
- **4대 사회보험가입장 명부**
- **수수료 이체 확인증**

### 발급 수수료

업체 정회원 수수료 할인

**비회원 • 일반회원 : 10,000원**

**업체 정회원 : 3,000원**

※ 계좌번호 : NH농협 301-0310-1060-91

※ 정회원 확인(1533-5160,#4) / 증명서 발급 문의(1522-5936,#5)

### 발급방법

※ 3일 이내 증명서 발급 처리, 가급적 신속히 발급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중 택1

온라인 신청  
6월 중 오픈

#### 오프라인



업체회원 가입 및 로그인  
접속 주소 : tkfea.or.kr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계좌이체



신청서 및 서류 메일발송  
※ 접수 메일 : tkfea@tkfea.or.kr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완료

발급 신청 바로가기

#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서식 개정 안내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2. 15.>

##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기준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업체명 한국산림기술인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세부분야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용역업 택 1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분야 작성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유 적격심사 제출용			
발급용도	적격심사 제출용	공고일(기준일)	2024.00.00.	제출처 지자체 상세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발주청의 동일 업체 확인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란 마련

##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번호	공고일(기준일)						
발급용도	제출처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술자격						교육훈련	
순번	자격종류	기술등급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발급일자	입사일
						기간	과정명



### 공고일(기준일) 마련

하단 발급일의 경우 문서 발급일 표기, 발주청 요청일이 있는 경우 공고일(기준일) 표기

※ 산림기술정보체계 내 마이페이지 내역과 동일 순서로 확인 용이

### 증명서 발급 순서 변경

동일업체 확인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서식 추가



한국산림기술인회 기고문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그 성공은 기본전략 수립에서 시작된다”



글\_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 송동근



##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소나무는 한자로 松(소나무 송)을 쓰며, 뜻을 나타내는 木(나무 목)과 公(함께 공)을 합친 글자로 최고의 작위(公:공작)를 가진 나무(木)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소나무는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곳곳하게 푸르름을 가지고 있어 절개와 의지의 상징으로 여겨져 충정, 지조와 같은 유교적 덕목과 얽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자리 잡고 있다.

### 그런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차 확산기를 거쳤고, 2014년 218만본으로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멸종된다는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며 적극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한 결과, 2021년 38만본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즈음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기도 했다.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나라는 없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받아왔다. 현재는 북해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켜야 할 소나무림 일부를 제외하곤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적어 보인다. 일본은 삼나무와 편백이 주요 관리 수종이며, 일본의 국민들은 소나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을까?

1905년 일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에 소나무는 얼마나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피해를 받았을까? 궁금했다. 2015년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에서 저명한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가 내한해 강의한 적이 있었다. 일본 교토대학의 명예교수인 후타이 카즈요시라는 분이였다. 한국에 도착해 이동하는 동안 우리의 소나무 숲을 보고서는 “우리도 송림이 이랬는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일본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기 전에 산림면적의 35%가 소나무림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알고 놀랐다.

최근 일본에서 소나무와 곰솔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라고 한다. 통계가 정확한 일본에서도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안전한 송림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략 10%라 한다고 한다. 우리의 소나무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기도 하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최근에도 매년 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은 여전히 성행한다. 왜일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강력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면 수 주일 또는 수 년 내에 모두 고사한다.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은 감염 후 수 주일 내에 고사한다. 병원성의 차이나 저항성의 차이로 인해 다소 늦게 발병하고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늦게 병징을 나타내는 잠재 감염목의 존재는 방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우리는 먼저 피해를 받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메커니즘이나 방제 방법을 모두 알고 있다.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오랜 연구로 인해 정설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방제 방법은 매개충이 소나무 체내에 있는 시기에 소나무를 벌채하고 소각 또는 파쇄해 구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방나무주사, 매개충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 등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법을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와 확산은 당국의 관심,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방제사업을 실시하면 감염 개체목은 줄어들고, 줄어든 감염목은 예산을 줄인다. 예산에 맞춰 방제사업을 게을리하면 여지없이 감염목은 증가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적정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해야 한다.





혹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상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지속적 투입은 낭비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시기를 늦출 뿐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최근 인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놀라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류의 기술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방법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을까? 필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사라지는 소나무의 시기만 늦춰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후는 다음 세대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전략의 부재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너무 강하다. 예산은 충분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소나무재선충병과의 기나긴 전쟁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가 방제전략, 권역별 방제전략,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비정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수립했다. 오랫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전쟁에서 전략의 부재는 패배로 귀결된다. 너무나 당연하다.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은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서 적절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 목표, 정책 그리고 각 프로그램들이 서로 양립되지 않도록 조합하여 수행하는 행위라고 한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강한 상대를 만나 한정된 예산으로 싸움을 할 때 첫째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략 수립이다. 소나무재선충병과의 한판 승부를 위하여 과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전략 수립이 시작이다”



사진 1 = 지난 5월 22일 밀양시 일대에서 실시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현장토론회의 현장견학 모습

지난 5월 22일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원 기술사 20여 명이 경상남도 밀양에 모였다. 나날이 확산되어 가는 남부지방의 소나무재선충병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별 방제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방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모임이었다. 특별방제구역에서 모두베기, 예방벌채를 통한 목재 이용과 방제, 반출금지구역의 재설정, 중요 소나무림 지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다.

하루 동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견해가 오갔지만 방제전략 전환을 위한 결론은 숙제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다만, 방제전략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다. 국가 방제전략, 권역별 방제전략, 지역별 기본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돼야 하며, 계획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방제사업이 실행되어야 함에 공감했다. 기본 전략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 전략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수립된다.



사진 2 = 지난 5월 22일 밀양시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현장 토론회 모습

요약하면,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이력 및 현황을 파악하고, 감염 본수를 추정해 사업 구를 구획하고, 방제 방법을 선정해 사업비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력 현황, 장비 현황을 파악해 사업 발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최근 방제 기간 연장 논의가 있었다. 방제 기간이 짧아서 방제를 완료하지 못하므로 연중 방제를 하자는 주장이다. 매개충이 우화 한 이후에 방제를 하는 것은 매개충 이동을 자극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발주계획을 통해 가을 방제를 충실히 시행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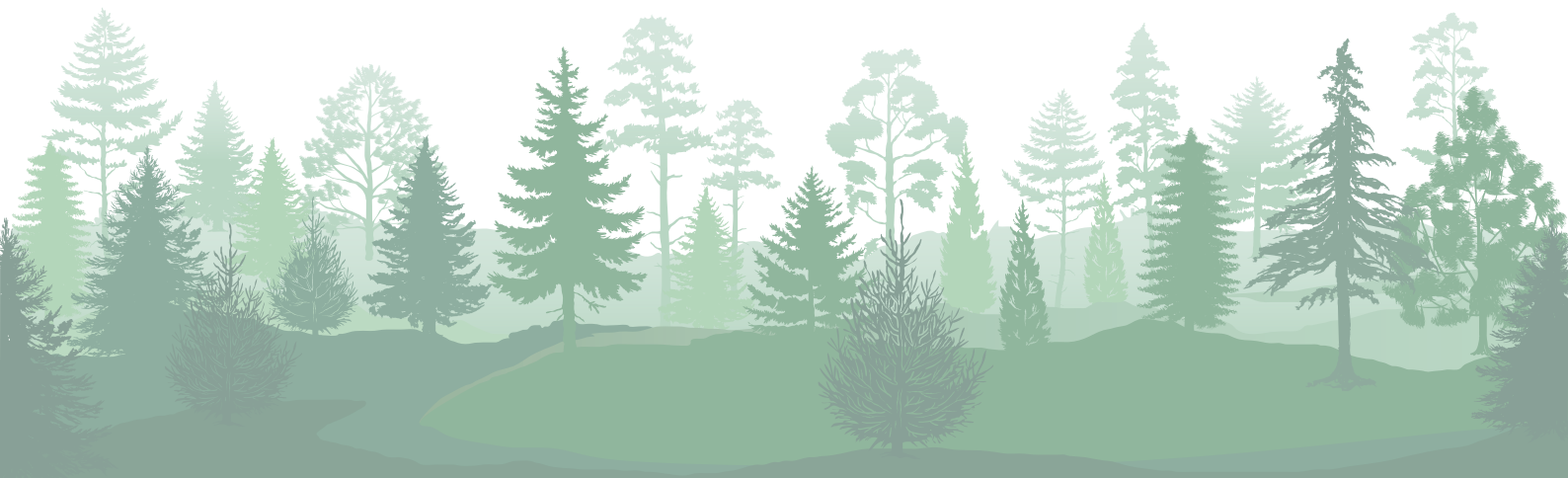
기본 전략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공유다. 전략과 계획은 공유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라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겠지만,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은 아군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의 발주자, 설계·감리자, 시공자 및 지역주민이 동의할수록 효과는 높다. 전략을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기본 전략이나 기본계획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협의회, 각종 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쩌면 계획은 수립보다 공유가 중요할지 모르겠다.



## “K-산림과 K-산림기술은 할 수 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노력이 사라지면 소나무는 빠른 속도로 소멸될 것이다. 북미 원산의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본(1905), 중국(1982), 대만(1985), 한국(1988), 포르투갈(1999), 스페인(2008)으로 확산됐다. 우리보다 먼저 피해가 발생한 일본, 중국, 대만은 실패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실패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 국가다. 험벗은 땅에 전 국민이 나무를 심어서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이것이 K-산림이고 K-산림기술이다. 우리는 이미 적의 존재를 알고 있고 적을 퇴치할 방법도 알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 적절한 예산 그리고 K-산림기술을 통한 전략과 계획이 더해지면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 튀니지의 참나무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로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 서쪽은 알제리와 남동쪽은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튀니지 면적은 16.3만 km<sup>2</sup>로 우리나라보다 1.5배 넓지만 인구는 1,230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 1,340만 명보다 인구가 적고, 튀니지 수도는 튀니스(Tunis)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20만 명의 도시다. 이는 튀니지에서 가장 큰 도시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 카르타고가 튀니스 동북 근교에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메디나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가 있다.





사진2 = 카르타고 유적지

튀니지는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부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틀라스산맥 지역이며, 중부지역은 초원 평야지대로서 올리브 나무 재배가 유명하고 남부지역은 건조한 사하라 사막지대이다. 튀니지 북쪽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인 12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비가 많이 오고 남부 및 내륙지역에서는 우기를 제외하면 고온 건조하다. 튀니지 국토의 7% 정도가 산림인데 침엽수로는 알레포 소나무(Aleppo pine, *Pinus halepensis*), 활엽수로는 코르크참나무(*Quercus suber*)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르크 참나무는 알제리 국경쪽 튀니지 북서부의 크루미리에(Kroumirie)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코르크 참나무 숲 지대는 연강수량이 1,000mm 이상으로 수자원 공급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코르크 수입은 국가 산림부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무는 땔감으로 많이 이용된다. 코르크 참나무의 수피(樹皮)에서 채취된 코르크는 병마개나 실내의 벽판재 등, 목재는 건축재, 가구재, 목공예, 땔감 등으로 이용된다. 코르크 참나무는 수고 10~20m, 흉고직경 50~90cm까지 자라고, 코르크 채취는 흉고직경 20~30cm가 됐을 때 시작

하고, 채취 간격은 8~12년으로 수령이 100년이 넘을 때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코르크 참나무의 주요 분포지인 크루미리에 산맥에 있는 젠두바(Jendouba)주는 튀니스 서쪽으로 차랑으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농경지, 초지, 올리브 농장이 많이 있고 서쪽으로 더 가면 농경지는 사라진다. 산으로 올라가면 암반이 노출된 척박한 산들이 나타나며, 다시 산 아래쪽으로 들어서면 참나무들이 등성등성 자라고 있는 코르크 참나무 숲이 나타난다. 코르크 참나무는 흉고직경이 30~40cm 정도로 굵지만 높이가 5~6m 정도로 낮아서 이 지역이 척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줄기가 2m 정도 높이까지 수피를 채취해 수피가 밋밋하고 위쪽은 수피가 그대로 있어 코르크층이 두껍고 굴곡이 심한 코르크 참나무 수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 이곳에서도 코르크 채취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 아래쪽 평지는 코르크 참나무 굵기가 20~30cm 정도로 수고가 10~15m로 비교적 키가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코르크 채취가 실시되고 있어 2m 높이까지는 짙은 색의 수피가 자라고 있으며, 줄기도 구불구불한 것이 많아 코르크가 주요 수입원임을 보여준다.

사진3 = 평지 코르크 참나무 숲 전경





사진4 = 코르크 참나무가 같이 자라는 포르투갈 참나무 숲

코르크를 채취한 한쪽에는 코르크 참나무를 벌채해 쌓아 놓은 것들도 보이는데 이 나무들은 아마도 떨감으로 이용 될 것 같다. 산 위로는 해발이 높아서인지 포르투갈 참나무 (Quercus faginea)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굵기는 한 아람 이 정도며, 나무 높이도 15m 정도다. 줄기가 곧은 포르투 갈 참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과 줄기가 구불구불한 코 르크 참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염소가 방목되고 있어 이 숲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을 주변 길가에는 커다란 포르투갈 참나무가 서있어 마치 우리나라 성황목을 보는 것 같다. 산에서 내려와 지중 해 해안에 있는 타바르카(Tabarka )쪽으로 가다 보면 코르 크 참나무 수피가 길가에 높이 2m가 넘고 길게 야적한 것들 이 줄지어 있고, 길가에 있는 100년이 됨직한 커다란 코르 크 참나무에서 코르크를 최근에 채취했는지 주황빛의 줄기 가 색다르게 보인다.

사진5 = 코르크 참나무 수피 야적장





사진6 = 수피를 채취한 코르크 참나무 수피

사진7 = 해안 코르크 참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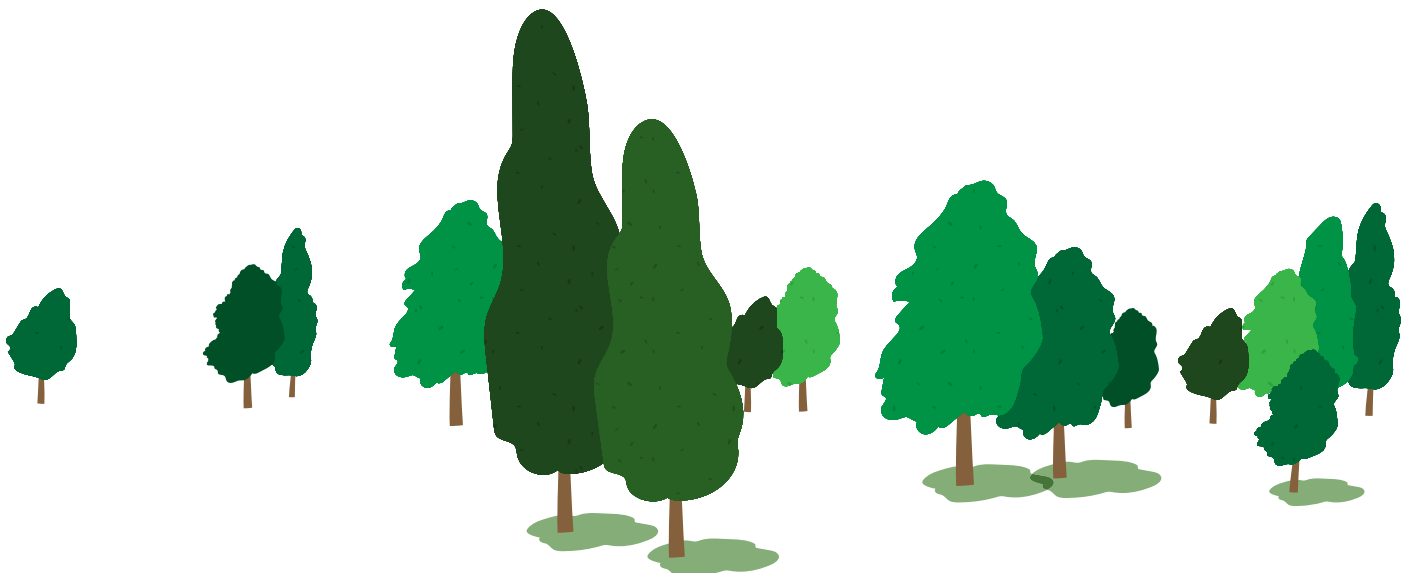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타바르카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로 많이 외국인들이 찾는 휴양지다. 타바르카 주변 해안에서 코르크 참나무 숲이 시작되어 내륙 산악지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안 쪽은 10m 내외 높이 정도로 그리 높게 자라지 못했지만 굽기는 한 아름다움이 훨씬 넘는 거칠고 두터운 수피가 줄기를 감싸고 있는 수령이 200년이나 되는 코르크 참나무가 등성등성 서 있는 숲이 있다.

이는 해안 사구 지역으로 건조하고 양분이 적어서 수령에 비해 높이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코르크 참나무 줄기는 높이 3~4m까지 코르크를 채취한 흔적이 있어 수령 20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튀니지의 코르크 참나무 숲은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이다. 이런 숲이 노령화, 방목 및 용도 전환 등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코르크 참나무는 코르크, 땀감, 목재 등 물질적인 것 외에도 건조한 지역에 수자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르크 참나무 숲의 유지 및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사진8 = 200년된 코르크참나무 숲 전경

### 자세히 보기



# NEWS

http://www.tkfea.or.kr |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 NEWS PAPER

## “탈 플라스틱 실천 앞장”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장,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참여 ... 후속 주자 송동근 한국산림기술사협회장



사진1 =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기술인회에 따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시작한 범국민적 참여 운동이다.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한국나무사협회 김판석 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진영문 회장은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모습과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송동근 회장을 지목했다.

진영문 회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도 탈 플라스틱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로 우리나라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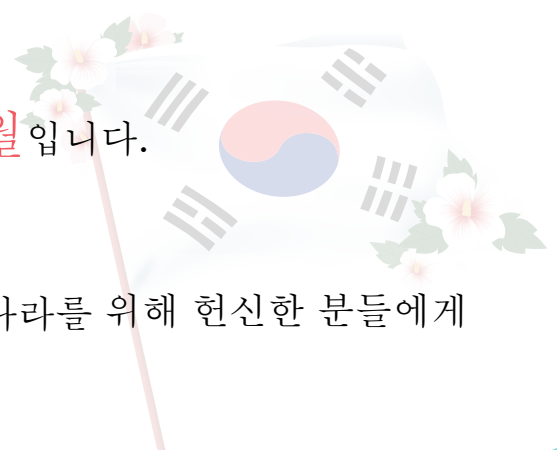


사진2 = 진영문 회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 보훈의 문화로 가는 첫걸음

기념일에 태극기를 달거나 근처 현충시설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어떨까요?

# 이번달 우리 회 소식은?



기술인회 소식

## # 시·도지회장 소통 간담회 개최

2024.05.08.



교육원 소식

## #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과정

2024.05.16 ~ 05.17.



교육원 소식

## # 제2기 녹지조경전문과정

2024.05.20 ~ 5.24.



기술인회 소식

##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소통 간담회

2024.05.21.





기술인회 소식

## # 전국국유림영림단 소통 간담회

2024.05.24.



교육원 소식

## # 제2기 경영기술전문과정

2024.05.27 ~ 5.31.



기술인회 소식

## #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소통 간담회

2024.05.28.



기술인회 소식

## # 산림분야 민생규제혁신 전담팀 회의 참석

2024.05.29.



기술인회 소식

##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월간보고회

2024.05.30.



기술인회 소식

## #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소통 간담회

2024.05.31.


[자세히 보기](#)

#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대 회장 취임식 영상 유튜브 게시!

하단 영상 클릭 시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대 회장 취임식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승고한 희생과 헌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승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SNS 채널**에 접속하세요



친구추가



가입하기



이웃맺기

(클릭하시면 해당 SNS로 이동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주소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6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및 회원문의)  
대표팩스 (042) 489-8581 / www.tkfea.or.kr

※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shekdm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발행일** 2024년 6월 3일(월요일)

**발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